

## 다문화 상담 경험과 다문화 상담 역량의 관계: 다문화 태도와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의 조절된 매개효과\*

강 수 정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 학생

유 금 란†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 교수

본 연구는 한국 상담자의 다문화 상담 및 관련 교육 경험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 상담 경험이 다문화 상담 역량으로 향하는 경로에서 다문화 태도와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의 영향을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 전문 상담자 및 상담 수련생 201명을 대상으로 다문화 상담 경험과 관련 교육 경험, 다문화 상담 역량, 다문화 태도,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을 측정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상담 경험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았고 다문화 상담 교육을 1번이라도 경험한 응답자는 60%에 그쳤다. 둘째, 다문화 상담 경험과 다문화 상담 역량 간 관계에서 다문화 태도가 부분 매개하였다. 셋째, 다문화 태도와 다문화 상담 역량 간 관계를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이 조절하였다. 넷째, 다문화 상담 경험과 다문화 상담 역량의 관계를 다문화 태도가 매개하고 이 경로를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이 조절하여 조절된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상담현장, 교육 및 연구를 위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다문화 상담 역량, 다문화 태도,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

\* 본 연구는 2019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교신저자 : 유금란,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지봉로 43

Tel : 02-2164-4271, E-mail : kyu@catholic.ac.kr

다문화 상담 역량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내담자와 상담 관계를 맺고 유지하며 성공적으로 종결하는 태도와 행동으로 정의된다(Lee & Park, 2013). 다문화 상담의 필요성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 중 특히 역사적으로 주변화된 집단(historically marginalized group)이 중산층 백인 남성 중심의 기득권적 가치 체계에 맞지 않을 때 그들을 열등한 집단으로 간주하거나 병리화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Arrendondo et al., 1996; Sue, Arrendondo, & McDavis, 1992). 많은 학자들은 문제의식의 대안으로 '소수자 스트레스'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소수자 집단에 가해지는 사회적 억압과 낙인이 그들의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결과를 설명하기 시작했다(Ratts, Singh, Nassar-McMillan, Butler, & McCullough, 2016). 현재 미국상담학회(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2014)는 상담자의 직업적 가치관으로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문화적 접근 방식을 포용하도록 윤리강령 서문에 밝혔으며, 미국 심리학회는 상담자의 문화적 세계관과 그에 따라 형성하는 무의식적 태도를 지속적으로 인식하고 변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주장하였다(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7).

Sue 등(1992)은 다문화 상담 역량 모형을 제안하면서 (1) 상담자의 자기 인식 (2) 내담자의 세계관 (3) 적절한 개입이라는 발달적 영역들이 다문화 상담 역량(Multicultural Counseling Competence)을 이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위 영역들 내에서 상담자의 (a) 신념 및 태도 (b) 지식 (c) 기술과 같은 역량들이 발달하리라 기대하고 있다. 이 모형에 따르면 다문화 상담 역량은 타고나기보다 앞서 소개한 발달적인 개념 체계 안에서의 훈련을 필요로 한다(Sue et al., 1992; Sue & Sue, 2016). 또한 다문화 상

담 역량은 일반 상담 역량과 동일한 상위 요인 아래 위치하나, 엄연히 독립적인 역량으로 간주되므로(임은미, 강혜정, 구자경, 2018a; Sadowsky, Taffe, Gutkin, & Wise, 1994), 기존의 상담 교육은 다문화 상담 역량 발달을 보장할 수 없으며 다문화 상담 역량 발달을 위한 연구와 교육이 요구된다.

한국도 이미 인종과 민족적 소수자를 비롯하여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 성적 지향, 종교 등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 다문화 사회이다. 따라서 한국의 상담 및 심리치료에서도 다문화 상담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였고, 상담자들의 다문화 상담 역량을 발달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김춘희, 손은령, 2014; 오은경, 최미, 최한나, 2016; 최가희, 2018). 최근 한국상담심리학회(2018)에서도 윤리강령을 개정하여 전문가로서의 태도, 사회적 책임, 내담자의 복지와 권리에 대한 존중, 심리평가 항목에 다문화 상담 역량 증진 필요, 다양성 존중 및 차별 금지 등을 강조하는 신설 조항들을 포함시켰다. 이는 상담자를 비롯한 상담교육자, 연구자, 수련생들이 모두 상담 및 심리치료에 요구되는 다문화주의를 수행, 연구, 교육하는 것이 윤리적이고 전문적인 행위임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 다문화 상담은 여전히 인종·민족적 소수자의 주류 적용 및 편입을 돕는 보수적 다문화주의(conservative multiculturalism) 특성의 정책 방향 아래 진행되고 있다(나장함, 2010; 최가희, 2018). 상담 내 다문화주의에 대한 인식적 한계와 맞물려 한국 다문화 상담은 인종·민족적 소수자 등 특정 대상 상담이라는 인식이 크다보니 이외의 다양한 하위집단(예. 세대·연령,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종교, 장애 및 신체적 특징, 사회경제적 지위)을 포괄하는 광의의 다문화 연구 및 교육이 양적·질적으로 부족하다(김춘희, 손은령, 2014), 그리고 국내 대학 기관에 다문화 상담 정규 교육과정이 설치된 사례가 매우 적기 때문에(김은하, 신윤정, 이지연, 2019; 김인규, 2009) 국내 개인 수련 과정에서도 다문화적으로 유능한 상담을 훈련할 기회는 흔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박경애와 백지은(2017)은 미국 상담 및 심리치료 논문의 경우, 다문화 역량의 관심을 심화시키려는 정책적 일환의 결과로 다문화/다양성 주제 영역의 높은 게재율을 이룬 반면 국내 상담 및 심리치료 학회지에서는 다문화 관련 절대적 분량 자체가 부족함을 지적하였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문화 상담 연구 동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구권에서는 상담자의 다문화 상담 역량 개발이 가장 많은 주제였던 반면 국내의 경우 다문화 가정 내담자 관련 문제가 많았다(김유리지, 2019). 국내 선행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면, 한국 다문화 상담은 한정적 대상을 향한 개입이라는 인식이 크고 한국 전문 상담자 및 수련생 모두를 위한 다문화 상담 역량 발달 교육과 연구 및 실천을 위한 논의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상담자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사람들을 내담자로 만나는 경험들을 통해 다문화 상담 역량을 발달시킬 수 있고 이는 많은 경험적 연구로 이미 입증된 바 있다(e.g., Pope-Davis, Reynolds, Dings, & Nielson, 1995; Sadowsky, Kuo-Jackson, Richardson, & Corey, 1998; Weatherford & Spokane, 2013). 그렇다면 상담자의 다문화적 경험은 어떤 경로로 다문화 상담 역량 발달에 기여하는가? 본 연구는 이 질문을 검증하기 위해 상담 실무 및 교육 분야 내

한국 상담자의 다문화 상담 경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다문화 상담 역량 모형의 발달적 과정 중 첫 번째 영역인 상담자의 자기 인식을 중점적으로 탐색하여 다문화 상담 역량 발달의 기본 경로를 확인하고자 한다. 효과적인 다문화 상담을 위해서는 상담자의 자기 인식에 따른 소수자 내담자의 세계관 이해, 그리고 그에 걸맞은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하다(Sue et al., 1992). 상담자의 자기 인식은 다문화적으로 유능한 상담의 토대를 이루는 차원으로, 문화적 존재로서의 자신이 어떤 세계관을 형성하였고 그것이 다른 문화적 배경의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신념과 태도를 갖추게 하는지를 평가하는 탐색 과정이다(Lee & Park, 2013). 그러므로 다문화 상담 장면에서 소수자 내담자를 만나게 되는 상담자는 자신의 세계관과 문화적 정체성을 토대로 개인적 태도를 형성하고 그 태도는 상담 관계와 상담 과정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Collins & Arthur, 2010). 다문화 상담 장면에서 상담자의 자기 인식은 (1) 상담자의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2) 소수자 내담자들이 겪는 사회구조적인 차별과 억압에 대한 민감성을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

상담자가 소수자 집단 내 개인 또는 다수를 내담자로 만날 때 형성되는 태도 중 그를 다문화적으로 이해하려는 긍정적 노력은 다문화 태도(Multicultural Attitude)로 이해할 수 있다. 다문화 태도는 다양한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다문화 사회에 대처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일관적인 내적 특성이다(강혜정, 임은미, 2012). Munroe와 Perason(2006)은 Bank의 변혁적 접근을 이론적 체계로 삼아 다문화 태도(the Munroe Multicultural Attitude Scale Questionnaire: MASQUE)를 측정도구로 개발하였

는데, 다문화 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비판적인 다문화 교육을 제안한 Bank의 변혁적 접근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변혁적 접근은 다양한 관점에서 인종, 민족, 계층, 성별 등과 관련된 차별과 사회적 문제를 살펴봄으로써 현상 이면에 감춰진 권력 관계와 자신의 인식을 비판적으로 자각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둔 교육적 접근이다. 이 접근은 소수자 집단의 다양성 인정을 포함하여 사회적 불평등의 구조적·물질적 근본을 중점으로 한 패러다임인 비판적 다문화주의(critical multiculturalism)에서 올바르게 수용되어 널리 적용될 수 있는데(나장함, 2010) 다시 말해, 변혁적 접근은 다문화적으로 유능한 상담자를 훈련시키는 데 필요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Henriksen, 2006).

변혁적 접근 내에서 구성된 다문화 태도는 지식(know), 정서적 관심(care), 행동(act)을 포괄하는데(Munroe & Perason, 2006), MASQUE를 한국판 대학생용 다문화 태도로 타당화한 강혜정과 임은미(2012)는 세 가지 구성 개념을 차이 인식, 개방과 수용, 실천 의지로 명명하기도 했다. 차이 인식은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차이로 인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지식을 말하며 이때 다양한 문화란 광의적 개념으로 인종·민족성·국적, 세대·연령,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종교, 장애 및 신체적 특징,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포괄한다. 개방과 수용은 다른 문화와의 차이를 공감적으로 이해하고 개방적으로 수용하여 관심과 흥미를 갖는 감정적 요소를 일컫는다. 실천 의지는 다문화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차별을 없애기 위한 실천을 모색하는 행동적 요소이다.

다문화 태도와 관련 요인의 국내 연구동향을 조사한 선곡유화, 박순덕, 이영선(2013)에

따르면, 다문화 태도는 다문화 관련 직간접적인 접촉 및 교육 경험들(예. 강진구, 2008; 권미은, 권미지, 이미아, 2012; 김진철, 장봉석, 2010)과 다문화 효능감 및 다문화 수용성 등과 같은 역량 요인(예. 권미은 등, 2012; 김진철, 장봉석, 2010; 최현정, 우민정, 2012)에 각각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고하였다. 다문화 태도가 교육적 필요성에 따라 개발되었기 때문에 언급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교사 대상의 연구들로, 상담자의 다문화 경험이 다문화 태도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경험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다문화 태도는 개인에게 일관성 있는 내적 특성으로 자리 잡고 있다가 다문화가 경험되는 장면에서 구체적인 다문화 행위로 표출된다(강혜정, 임은미, 2012; 선곡유화 등, 2013). 이를 본 연구에 적용하면, 다문화 태도는 상담자가 다문화 상담 장면에서 역량 있는 다문화 상담을 진행할 수 있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심리적 구인으로서 그 과정을 설명할 것이라 예상한다. 덧붙여, 다문화 태도와 유사한 개념인 문화적 차이, 권위주의, 소수자 차별, 내집단 편향 등에 관한 각각의 태도가 다문화 상담 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보고한 해외 연구들(e.g., Constantine, 2002; Reynolds & Rivera, 2012; Sadowsky et al., 1998; Weatherford & Spokane, 2013)을 고려하면, 이 예상은 합리적으로 타당해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 상담 경험을 통해 다문화 태도를 함양시키고 전문적인 행위인 다문화 상담 역량을 발휘하고 증진시킬 수 있으리라 가정한다.

그러나 다문화 상담을 수행하는 모든 상담자들이 이 과정을 거쳐 다문화 상담 역량을 발달시킨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양한 문화 배경의 사람들과의 접촉은 오히려 편견이나

부정적 인식을 강화시킬 수 있어 접촉 빈도가 아닌 접촉의 본질이나 접촉의 다각성(최가희, 2019; Parrillo, 2015)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접촉의 긍정적 영향력은 정서적 측면(예, 호감)의 증진에 나타나고 고정관념의 개선 효과는 약하다는 결과(Tropp & Pettigrew, 2005)와 문화적 옹호 태도를 갖춰도 문화적 민감성이 부족하다면 무의식적 차별과 억압을 보일 수 있다는 논의(Jun, 2018)를 통합해보면, 상담자의 문화적 민감성과 고정관념 수준에 따라 소수자 내담자를 만나며 발휘하는 다문화 상담 역량은 상이한 결과를 보일 수 있다. 덧붙여, 다문화 태도의 근간인 Bank의 변혁적 교육 접근은 상이한 다문화주의 패러다임에 따라 다른 수준으로 수용/거부 및 변용될 수 있다(나장함, 2010). 나장함(2010)에서 예증된 교사 사례를 상담자로 대입하면, 집단 간 문화적 다양성에만 역점을 둔 다원적 다문화주의(pluralist multiculturalism) 지지자의 상담은 다양한 사회 장면에 존재하는 권력(power)과 특권(privilege)의 불균형을 인식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와 같은 다문화적 접근은 사회구조적 차별을 겪는 내담자에게 개인적·심리학적 개입만을 강조할 수 있다(나장함, 2010). 특권과 억압에 민감하지 못한 상담자는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소수자가 처한 차별과 억압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갖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다문화 상담 역량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문화주의 패러다임에 대한 주장은 다문화주의를 상담에 어떻게 통합시켜야 다문화 상담 역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논의했던 상담심리학 연구들(Constantine, Hage, Kindaichi, & Bryant, 2007; Vera & Speight, 2003)과 맥락을 함께 한다. 많은 학자들은 상담 내 다문화주의 개념의 도입 이후 다문화 상담의

개념을 재점검하고 확장하는 일환으로 다문화 상담 역량은 단순히 문화적 차이의 인식이나 개인 간 상담에서 실현되는 능력으로 제한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며, 다문화주의는 결국 사회정의(social justice)를 실현하기 위한 의제이자 문화적 민주주의, 그리고 공평에 대한 개념이라고 밝힌 바 있다(Sue et al., 1998; Vera & Speight, 2003). 최근 다문화 상담은 불평등과 차별 문제의 초점이 개인적 접근에만 머무를 수 있다는 한계를 발견하고, 거시적 관점에서 사회 제도, 조직 체계의 변화를 일으키는 상담자의 적극적 행동이 필요하다는 합의를 이루었다(Mallinckrodt, Miles, & Levy, 2014). 이에 따라 앞서 소개된 다문화 상담 역량 모형은 2015년 다문화 및 사회 정의 상담 역량 모형(Multicultural and Social Justice Counseling Competence: MSJCC)으로 재편되었고 사회 정의 관련 발달 영역과 역량 목록이 추가하였다(Ratts, Singh, Nassar-McMillan, Butler, & McCullough., 2016). 특히 MSJCC는 상담자-내담자 관계(privileged/marginalized-counselor/client)에서 문화적 정체성 간의 교차성과 사회적 권력, 특권 및 억압이 존재함을 명시하였다. 이는 상담자-내담자의 역할 차이에 따른 ‘본질적인 힘의 차이’, 즉 전문적 도움을 제공하는 권위자인 상담자와 취약한 상태에서 도움을 받는 내담자라는 구조에 더불어(Zur, 2009), 상담자와 내담자 모두가 상담 안팎에서 겪게 되는 사회적 권력과 억압을 모두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종합하면, 상담자의 다문화 상담 역량 수준은 다문화주의 패러다임, 즉 사회구조적 힘과 특권, 차별과 억압에 대한 개인의 세계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때 상담자 개인의 세계관이란 그가 지각하는 세계의 정당성(또는

차별성)에 대한 믿음으로, 사람은 자신의 세계관에 따라 마주한 편견과 차별을 평가하고 대처하며 궁극적으로 반응하는 양식을 형성한다(Major, Kaiser, O'Brien, & McCoy, 2007). 그 중 주목할 만한 개념은 불평등 의식과 부당함을 반영하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Belief in a Just World; BJW)으로 자신이 사는 사회가 노력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다는 세계관을 의미한다(김은하, 김도연, 박한솔, 김수용, 김지수, 2017). BJW의 토대가 되는 시스템 정당화 이론(System Justification Theory)에 의하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세상이 정당하다고 믿으며 그 믿음을 위협하는 불평등한 사건(예. 특정 사회적 차별이 발생하면 세상을 합리화하려는 인지적 부조화 현상을 경험하고, 무의식적으로 체제 유지에 대한 정당성을 고수하고자 한다(Correia & Vala, 2003; Jost & Hunyady, 2005).

또한 BJW는 그 믿음의 대상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 개인을 향한 믿음(BJW-self)과 타인과 세상을 향한 일반적인 믿음(BJW-others)으로 구분할 수 있다. BJW-self는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이 공정하고 자신이 노력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을 의미하고, BJW-others는 세상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고 노력한 만큼의 정당한 보상을 받게 할 것이라는 믿음을 일컫는다(Lipkus, Dalbert, & Siegler, 1996). 이 구분은 개인 내적인 차원과 사회적인 차원에서 상반된 효과를 보이는데 BJW-self가 높은 사람은 세상에 대한 통제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건강한 심리적 적응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제공한다(김은하, 정보현, 2018; Khera, Harvey, & Callan, 2014; Lipkus et al., 1996). 반면, BJW-others가 높은 사람은 이민자, 흑인, 저소득층, 여성, 성소수자 등의 소

수자를 타하는 경향과 관련이 있어 차별의 부정적 영향력을 완충할 것이라는 기대와 반대로, 오히려 그 영향력을 강화시켰다(김은하, 김경희, 박한솔, 정보현, 2018; 김은하, 전주원, 2019; 김은하, 정보현, 2018; 백근영, 2019; Cozzarelli, Wilkinson, & Tagler, 2001; Khera et al., 2014). 지각된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은 개인의 정당한 세계관을 위협하므로 피해자나 소수자의 문제를 사회 제도 및 환경 문제가 아닌 개인의 의지와 노력 부족으로 귀인하기 때문이다(Correia & Vala, 2003; Lipkus, 1991). 본 연구는 소수자 내담자가 속한 세계의 차별과 억압에 대한 상담자의 민감성과 고정관념을 다루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BJW-others에 주목하고자 한다. 한국 상담자의 BJW-others를 측정 한 백근영(2019)에 따르면 상담자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은 책임 귀인을 통해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과 부정적 정서, 그리고 소수자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행동 의도 모두에 순차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 결과는 상담자가 지닌 정당한 세상에 대한 세계관이 소수 집단 내담자와의 상담 관계와 상담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상담자의 다문화 상담 경험으로 발현된 다문화 태도가 다문화 상담 역량으로 향하는 경로에서 소수자를 향한 사회 구조적 차별을 인지하는 개인의 신념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상담자가 사회 구조적 특권과 억압에 대해 민감하지 않다면, 내담자의 다문화적 정체성을 개인 내적인 차원에서만 인식하면서 다문화적 상담 지식과 개입 방향을 개인의 역량에 집중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고 그것은 다문화 상담 역량을 발달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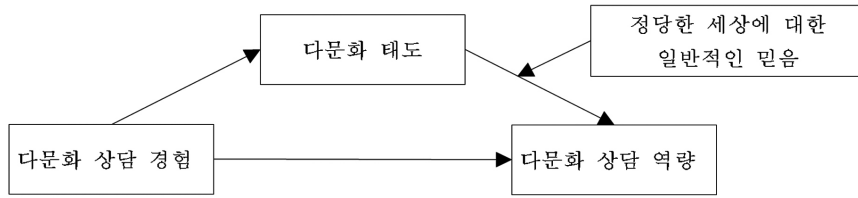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조절된 매개효과)

다. 다시 말해, 본 연구는 상담자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이 높을 때, 다문화 상담 경험이 다문화 태도를 통해 다문화 상담 역량으로 향하는 경로를 저해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상담자 자신이 다문화 경험을 마주할 때 발생하는 상담자의 다문화태도와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이 다문화 상담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상담자의 다문화적 자기 인식 발달을 돕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매개모형과 조절모형을 결합한 조건부 과정 분석(조절된 매개효과)을 이용하고자 한다(Hayes, 2018). 최종적인 연구 모형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가설 검증에 앞서, 다문화 상담 경험과 교육 경험에 대한 실태를 함께 파악함으로써 상담자의 다문화적 자기 인식 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상담자의 다문화 상담과 교육 및 수련 경험의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한국 상담자의 다문화 상담 경험이 다문화 상담 역량으로 가는 경로에서 다문화 태도는 매개하는가? 셋째, 다문화 태도가 다문화 상담 역량으로 향하는 과정을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이 조절하는가? 넷째, 다문화 상담 경험과 다문화 상담 역량 간의 관계에서 나타난 다문화 태도의 매개효과를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

이 조절하는가?

## 방 법

### 연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2019년 9월 연구자 소속 생명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 하에 진행되었다(1040395-201908-04). 설문은 상담/심리치료 경력을 갖춘 상담 관련 전공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대상자들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예. 상담심리학회 게시판, 상담학회 게시판, 상담심리 관련 대학원 원우회 등 수련/종사자 온라인 카페, 각종 소셜 미디어)에 10월 23일부터 11월 12일까지 배포되었다. 표본 크기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효과크기( $f^2$ )는 중간 크기 0.15로 설정하고, 유의수준 0.05, 검정력 95%의 조건에서 분석이 가능한 표본 크기는 153명으로 나타났다(Faul, Erdfelder, Buchner, & Lang, 2009). 탈락률 및 불성실한 응답률을 고려하여 201명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모든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만 36.1세 ( $SD=8.34$ ), 성별은 여성 182명(90.5%), 남성 17명(8.5%), 기타(에이젠더, 성별불명) 2명(1.0%)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종교는 종교 없음 82

명(40.8%), 개신교 66명(32.8%), 천주교 39명(19.4%), 불교 14명(7.0%)이었다. 최종 학력은 석사졸업 132명(65.7%), 박사과정/수료 38명(18.9%), 석사과정/수료 23명(11.4%), 박사졸업 8명(4.0%)으로 이루어졌으며 전공은 상담이 170명(84.6%)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임상 13명(6.5%)이 그 뒤를 이었다. 상담 관련 자격은 2급(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2급,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2급,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2급,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사 2급) 121명(60.2%), 1급/전문가(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1급, 한국임상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44명(21.9%), 소속 학회 내 준회원 및 정회원 36명(17.9%)으로 보고되었다. 현재 재직하는 주요 기관은 아동 청소년 대상 공공기관 46명(22.9%), 대학교 학생생활상담소 40명(19.9%), 사설상담센터 39명(19.4%), 소속대학원 내 재학 중 실습 24명(11.9%) 등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평균 상담 경력은 5.56년( $SD=4.38$ )이었다.

#### 측정 도구

##### 다문화 상담 경험

다문화 상담의 내담자는 RESPECTFUL 모형(D'Andrea & Daniels, 2001)과 ADDRESSING 모형(Hays & Erford, 2018)을 참고하여 주류 집단의 권력과 특권을 동등하게 지니지 못하고 사회적 억압과 차별·도전을 겪기 쉬운 소수자 집단에 속하는 사람으로 명시하였다. 각 집단은 임은미, 강혜정, 김성현, 구자경(2018b)이 한국 상황에 맞춰 포함시켰던 기준을 토대로 구분하였고 연구대상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각 예시를 제공하였다. 조사한 집단은 (1)

인종·민족성·국적(예.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정 내 구성원, 북한이탈주민), (2) 세대·연령(예. 청소년 또는 노인), (3)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예. LGBTQ+[동성애자, 양성애자, 범성애자, 무성애자 등] / 트랜스젠더, 젠더퀴어, 퀘스처닝 등), (4) 종교(예. 한국 내 주류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 (5) 장애 및 신체적 특징(예. 신체, 발달, 정신 장애를 모두 포괄함. 신체적 특징의 경우 사회적으로 차별적 시선을 경험하는 대상군), (6) 사회경제적 지위(예. 사회적 지위[직업, 교육수준 등]와 경제적 지위[수입, 재산 등])로 구분되었다. 해당 집단의 정체성을 지닌 내담자와의 상담 경험 빈도를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없다, 5=매우 많다)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71이었다.

##### 다문화 상담 관련 교육 및 수련 경험

다문화 상담 관련 교육 및 수련 경험은 유형별로 여부를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대학원/대학 교육과정 내 다문화 상담 정규 과목의 수강 혹은 개설 여부, 다문화 상담 관련 단기 특강 및 워크숍 참여 여부, 다문화 상담 주제 수퍼비전 발표 및 참관 여부를 측정하였다.

##### 다문화 태도

다문화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Munroe와 Pearson(2006)의 MASQUE(the Munroe Multicultural Attitude Scale Questionnaire)를 강혜정과 임은미(2012)가 한국 실정에 맞춰 타당화한 다문화 태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 요인으로는 차이 인식 6문항, 개방과 수용 5문항, 실천 의지 5문항의 3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차이 인식은 우리 사회 속 차이와 차별의 존재를 이해



하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예. 나는 성별로 인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개방과 수용은 문화, 언어, 종교적 다양성 등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예. 나는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존중하는데 관심이 있다). 실천 의지는 사회적 차별을 없애기 위해 참여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낸다(예. 나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제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각 문항은 6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6=매우 그렇다)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뜻한다. 강혜정과 임은미(2012)의 하위변인별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차이 인식 .79, 개방과 수용 .77, 실천 의지 .78였다. 본 연구에서는 하위변인별로 .82, .83, .86 이었고 전체 신뢰도는 .91이었다.

####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

본 연구에서는 Lucas, Zhdanova, Alexander (2011)가 개발하고 김은하 등(2017)이 번안 및 타당화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척도(Belief in a Just World Scale: K-BJW) 중 일반적인 믿음(BJW-others) 8문항을 사용했으며,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은 다른 사람이 사는 세상이 정당하다고 믿는 것을 의미한다(예.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결과물을 받는다). 각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1=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7=매우 동의한다)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세상에 정당하다고 믿는 정도가 높음을 가리킨다. 김은하, 전주원(2019)에서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9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3으로 나타났다.

#### 다문화 상담 역량

상담자의 다문화 상담 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Sue 등(1992)이 제안한 다문화 상담 역량의 구조를 임은미 등(2018b)이 한국 실정에 맞춰 개발한 다문화 상담 역량(Multicultural Counseling Competency Scale for Korean Counselors: KMCCS)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45문항으로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이며, 각 요인은 5문항씩 9 요인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상담자의 다문화 상담 역량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은미 등(2018b)의 전체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94를 보고하였고, 본 연구는 하위변인별로, 상담자 문화에 대한 수용 .78, 상담자 문화에 대한 지식 .80, 상담자 문화의 영향 조절 노력 .85, 내담자 문화에 대한 존중 .78, 내담자 문화에 대한 지식 .84, 다문화적 지식 활용 .86, 다문화적 기법 수용 .76, 개입기법의 차별적 요소에 대한 지식 .81, 다문화적 상담 개입 기술 .84였고, 전체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95였다.

#### 자료 분석 절차

수집된 자료는 SPSS 22.0와 Hayes(2018)의 SPSS PROCESS Macro 3.4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SPSS 22.0으로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였고,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상관분석, 내적 합치도를 산출하였다. Hayes(2018)는 조건부 모형 분석은 최종모형을 통합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로도 충분하고 특히 조절모형 결과가 조절된 매개모형 결과를 보장하지 않음을 주지하였으나, 본 연구는 각 개별 과정을 이해하는 방편으로 매개효과, 조절효과, 조절된 매개효과를 순차적으로 분석하였다. 매개효과는 SPSS PROCESS

model 4를 이용하였고, 조절효과는 model 1을 이용하였다. 조절효과 분석 시 예측 변인과 조절 변인의 평균중심화를 진행했고, 조절변인 값이 편포될 가능성을 감안하여 조절 변인의 백분위 값(16th, 50th, 84th)을 이용하여 단순 기울기 분석을 실시하였다(Hayes, 2018). 조절된 매개효과는 model 14를 이용하여 분석을 하였고 조절된 매개효과 지수를 통해 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보았다. 각 효과들의 유의성 검정을 위해 95%의 신뢰구간과 5,000개의 Bootstrapping이 수행되었다.

## 결 과

다문화 상담 경험과 교육 및 수련 경험에 대한 빈도분석

다문화 상담 경험을 대상별로 살펴본 결과, 인종·민족성·국적 소수자와의 상담은 평균 2.05점( $SD=1.11$ ), 세대·연령은 3.34점( $SD=1.29$ ),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2.38점( $SD=1.13$ ), 종교 2.11점( $SD=1.14$ ), 장애·신체적 특징, 2.58점( $SD=1.13$ ), 사회경제적 지위 3.40점( $SD=1.07$ )로 나타났다.

다문화 상담 교육 및 수련 경험은 학부 및 대학원 내 정규 교육과정 과목, 특강 및 워크샵, 수퍼비전에서 각각 교육을 받아보았는지 그 여부를 측정하였다. 정규 교육과목으로 다문화상담을 수강한 응답자는 48명(23.9%), 수강하지 않은 응답자는 91명(45.3%), 개설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은 62명(30.8%)였다. 다문화 상담 과목의 개설 여부와 관련 없이 다문화 상담 과목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전체의 76.1%(153명)이었다. 다문화 상담 관련 특강이나 워크샵을 참여해 본 적이 있는 응답자는 65명(32.3%), 참여 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136명(67.7%)이었다. 다문화 상담 관련 수퍼비전을 받아 본 사람은 67명(33.3%), 그렇지 않은 사람은 134명(66.7%)였다. 어떤 형태로든 다문화 상담 관련한 교육이나 수련을 1회라도 경험한 응답자는 120명(59.7%)이었고, 단 1회조차 경험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81명(40.3%)이었다.

##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자료의 일반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와 상관분석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우선 모든 변인들의

표 1. 주요변인들의 상관관계 및 평균과 표준편차

	1	2	3	4	5	M	SD	왜도	첨도
1. 상담경력(year)	-					5.56	4.38	1.12	0.83
2. 다문화 상담 경험	.276***	-				2.65	0.73	0.01	-0.32
3. BJW-others	-.030	.006	-			3.72	1.07	0.31	-0.28
4. 다문화 태도	.042	.240***	-.017	-		4.99	0.60	-0.33	0.33
5. 다문화 상담 역량	.155*	.477***	-.007	.572***	-	3.64	0.48	0.13	-0.18

주. \* $p < .05$ , \*\*\* $p < .001$ . BJW-others=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

왜도와 첨도가 정상성을 위배하지 않아 정규 분포를 가정할 수 있었다.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상담 경력은 다문화 상담 경험과 다문화 상담 역량에 정적 상관을 보고하였으나 BJW-others나 다문화 태도와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문화 상담 경험과 다문화 태도, 다문화 상담 역량은 각각의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BJW-others는 어떤 변인들과도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 매개효과 검증

다문화 상담 경험과 다문화 상담 역량 간의 관계에서 다문화 태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분석한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첫째, 예측변인인 다문화 상담 경험은 종속변인인 다문화 상담 역량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B=0.312, p<.001$ ). 둘째, 다문화 상담 경험은 매개변인인 다문화 태도를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B=0.195, p<.01$ ). 셋째, 다문화 태도는 다문화 상담 역량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B=0.391, p<.001$ ). 이때, 함께 투입된 다문화 상담 경험은 여전히 유의했으나 그 크기가 감소하였다

( $B=0.236, p<.001$ ).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간접 효과 유의성을 검증하였고, 95%의 신뢰구간에서 간접효과 계수의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따라서 다문화 태도는 다문화 상담 경험과 다문화 상담 역량 간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절효과 검증

다문화 태도와 다문화 상담 역량 간의 관계가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BJW-others) 수준에 따라 조절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를 표 3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다문화 태도는 BJW-others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문화 상담 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Delta R^2=.016, p<.05$ ). BJW-others의 조절효과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단순 기울기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BJW-others가 높을수록 다문화 태도가 다문화 상담 역량으로 가는 경로를 약화시키나 경로는 여전히 유의하였다.

표 2. 다문화 상담 경험과 다문화 상담 역량의 관계에서 다문화 태도의 매개효과 검증

	경로	B	SE	R <sup>2</sup>	ΔR <sup>2</sup>	t
1	다문화 상담 경험 → 다문화 상담 역량	0.312	0.041	.228	-	7.659***
2	다문화 상담 경험 → 다문화 태도	0.195	0.056	.058	-	3.487**
3	다문화 상담 경험 → 다문화 상담 역량	0.236	0.036	.450	.222	6.641***
	다문화 태도	0.391	0.044			8.942***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매개변인	간접효과	Boot SE	Boot LLCI	Boot ULCI	
	다문화 태도	0.076	0.023	0.035	0.125	

주. \*\* $p<.01$ , \*\*\* $p<.001$ . 비표준화 계수로 제시되었음

표 3. 다문화 태도와 다문화 상담 역량의 관계에서 BJW-others의 조절효과 검증

경로		B	SE	R <sup>2</sup>	ΔR <sup>2</sup>	t
1	다문화 태도(A) → 다문화 상담 역량	0.482	0.046	.342	-	10.392***
	BJW-others(B)	0.011	0.026			0.450
2	A x B → 다문화 상담 역량	-0.096	0.043	.358	.016	-2.235*
조절변인: BJW-others		조절변인의 조건부 값에 따른 직접효과				
		직접효과	Boot SE	Boot LLCI	Boot ULCI	
낮은 (16 <sup>th</sup> )	-1.093	0.587	0.069	0.450	0.724	
중간 (50 <sup>th</sup> )	-0.093	0.491	0.047	0.398	0.584	
높은 (84 <sup>th</sup> )	1.158	0.371	0.065	0.243	0.498	

주. \* $p < .05$ , \*\*\* $p < .001$ . BJW-others=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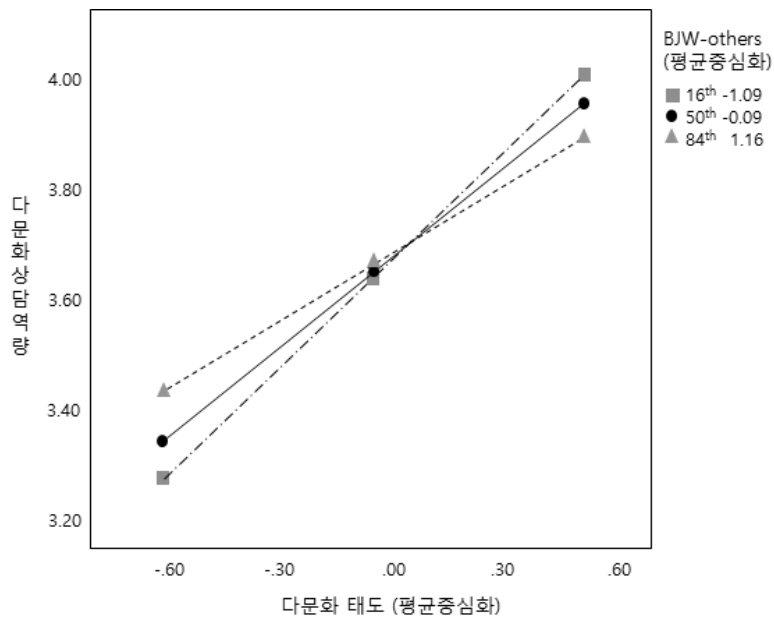


그림 2. 다문화 태도와 다문화 상담 역량의 관계에서 BJW-others의 조절효과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다문화 태도를 매개로 다문화 상담 경험이 다문화 상담 역량으로 미치는 과정에서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이 조절된 매개

효과를 나타내는지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다문화 상담 경험은 다문화 태도와 다문화 상담 역량을 모두 유의하게 예측했고, 다문화 태도는 다문화 상담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또한 다문화 태도와

표 4. 다문화 상담 경험과 다문화 상담 역량의 관계에서 BJW-others와 다문화 태도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경로	B	SE	R <sup>2</sup>	ΔR <sup>2</sup>	t
1	다문화 상담 경험	→ 다문화 태도	0.032	0.009	.054	-	3.358**
	다문화 상담 경험		0.042	0.006			7.389***
2	다문화 태도(A)	→ 다문화 상담 역량	0.412	0.042	.477	-	9.755***
	BJW-others(B)		0.010	0.023			0.450
	A x B		-0.113	0.038	.499	.022	-2.946**
조절변인: BJW-others		조절변인의 조건부 값에 따른 간접효과					
		간접효과	Boot SE	Boot LLCI	Boot ULCI		
16 <sup>th</sup>	-1.093	0.101	0.033	0.042	0.171		
50 <sup>th</sup>	-0.093	0.080	0.025	0.035	0.131		
84 <sup>th</sup>	1.158	0.053	0.020	0.020	0.094		

주. \*\* $p < .01$ , \*\*\* $p < .001$

표 5. 조절된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조건부 간접효과	Boot SE	Boot LLCI	Boot ULCI
Index	-0.021	0.011	-0.047	-0.003

BJW-others의 상호작용이 다문화 상담 역량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하였다. 이를 통해 다문화 태도를 매개로 다문화 상담 경험이 다문화 상담 역량으로 가는 과정을 BJW-others가 조절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조절변수 수준별로 조건화된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및 크기를 살펴보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하였다. 세 수준 모두 신뢰구간 내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BJW-others의 값이 높을수록 간접효과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조절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조건부 간접효

과는 신뢰구간 내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었고, 다시 말해 조건부 간접효과 간 차이의 유의성(significant of difference)이 검증되었다.

## 논 의

본 연구는 한국 전문상담자 및 상담 수련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상담 및 관련 교육 경험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 상담 경험이 다문화 상담 역량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상담자의 다문화 태도와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의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한국에서 상담 및

심리치료 경력이 있는 대상자 201명에게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다. 먼저 다문화 상담 경험을 대상별 빈도로 조사하였고 다문화 상담 관련 교육 경험을 교육 형태에 따라 참가 여부로 조사하였다. 그리고 다문화 상담 역량 발달 과정을 상담자 자기 인식적 측면에서 이해하기 위해 다문화 상담 역량과 관련이 있는 주요변인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다음 다문화 상담 경험이 다문화 상담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그 과정에서 다문화 태도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다문화 태도와 다문화 상담 역량의 관계에서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상담 경험과 다문화 상담 역량에 대한 다문화 태도의 매개효과가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으로 인해 조절되는지를 파악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상담자의 다문화 상담 경험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한국 상담자의 다문화 상담 경험 수준은 대상별로 차이를 보였으며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3점(가끔 있다)을 넘은 집단은 사회경제적 지위 집단과 세대·연령 집단뿐이었고, 이외에는 모두 2점대(거의 없다)로 장애 및 신체적 특징, 성소수자, 종교, 인종·민족성·국적 소수자의 순이었다. 이 결과는 평균적으로 낮은 점수들을 보고한 가운데 사회경제적 지위와 연령 및 세대 점수가 가장 높았던 국내 선행연구들과 유사하다(임은미 등, 2018a; 임은미 등, 2018b). 사회경제적 지위와 세대·연령 집단의 상담 경험이 비교적 많은 현상은 약 60%의 상담 종사자가 유관 공공기관(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학교)에 소속되었다고 보고한 국내 실태조사 결과(상담진흥협회, 2017)에서 추

론할 수 있는데, 본 연구 대상자의 청소년 및 성인 대상 공공기관 종사자 또한 전체에서 적지 않은 비중(34.8%)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인종·민족성·국적 소수자 상담은 공공기관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제일 낮은 빈도를 보고했는데 이는 상담자의 관련 준비 부족과 편견, 다문화 기관 내 상담 전문 인력의 낮은 재직률, 그리고 상담을 원치 않는 대상 내담자들 등의 문제(양미진, 이동훈, 고흥월, 김영화, 남현주, 2012; 위주원, 최하나, 2015; 황미경, 2012)와 관련할 수 있다. 또한 적은 빈도의 다문화 상담 경험 중 일부는 문화적 정체성의 가시성(visibility) 여부와 연결 지을 수도 있는데 즉 내담자가 본인의 문화적 정체성을 스스로 밝히지 않아 상담자가 그 경험을 인식하지 못했을 경우이다. 예를 들어, 성소수자의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은 자칫 ‘보이지 않는’ 정체성으로 그것을 노출시키기에 안전하지 않거나 수용적이지 않은 환경에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성소수자 내담자들은 상담자의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적인 또는 수용적인 인식 및 태도에 따라 자신의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의 노출 여부, 또는 상담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고 보고했다(박수영, 공춘옥, 정윤경, 2018; 전환치료근절운동네트워크, 2016). 다만 본 연구는 내담자의 문화적 정체성을 가시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상담자의 노력이나 인식을 측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후속적 검증이 요구될 것이다.

둘째, 다문화 상담 교육 경험을 조사한 결과, 다문화 상담을 정규과목으로 수강한 적이 없었던 응답자는 76.1%였고, 특강 및 워크숍이나 다문화 상담 슈퍼비전을 경험해본 적이 없는 응답도 약 67%를 차지하였다. 이는 상담

심리전문가의 68.7%가 다문화 교육과 수퍼비전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했던 국내 결과(김은하 등, 2019)와 유사한 수준이다. 다문화 상담 역량은 일반 상담 역량과 별도로 훈련받아야 하는 역량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전문 상담자 및 수련생에게 다문화 상담자로서의 자기 인식을 체계적으로 훈련할 기회는 여전히 부족함을 반영한다. 선행연구 결과, 한국 상담자들은 다문화 상담에 대한 독립교과개설 또는 학회 차원에서의 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음이 보고되었다(김은하 등, 2019; 서영석, 안수정, 안하얀, 이소연, 2019). 그러므로 상담 관련 학회와 대학원을 비롯한 수련 기관에서 다문화 상담을 위한 상담자 교육과 수퍼비전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연구 모형 이전에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주목할 만한 결과가 보고되었다. 먼저 상담 경력은 다문화 상담 역량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다문화 태도와는 유의하지 않았다. 상담 경력은 높은 일반 상담 역량을 예측한다는 상담자 발달의 기본 가정(Loganbill, Hardy, & Delworth, 1982)을 생각할 때, 이 결과는 높은 일반 상담 역량은 다문화 상담 역량과 공통으로 지니는 전문성, 인성과 태도 측면을 보장할 수 있으나 다문화에 대한 수용적 인식, 정서 및 행동으로 구성되는 다문화 태도는 이와 별개로 함양해야 하는 자질임을 뒷받침한다(Sue et al., 1992).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BJW-others)은 모든 상담 관련 변인들 및 다문화 관련 변인들과 유의한 관계를 보고하지 않았다. 이 결과로 다문화 태도나 다문화 상담 역량의 수준과 별개로 작용할 BJW-others의 특성을 짐작할 수 있었다. 또한 다문화 상담 경험, 다문화 태도, 다문화 상담 역량은 예상과 같이 모두 정적

상관을 보고하였다. 이 분석은 다문화 상담 역량 발달 경로가 검증 가능하다는 사전 분석과 같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조건부 모형의 회귀분석 결과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회귀분석 결과, 첫째, 다문화 상담 경험이 다문화 상담 역량에 미치는 경로에서 다문화 태도의 부분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 상담 경험이 다문화 상담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들(임은미 등, 2018a; Sadowsky et al., 1998; Weatherford & Spokane, 2013)과 다문화 경험이 다문화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권미은 등, 2012; 김진철, 장봉석, 2010), 다문화 태도가 다문화 관련 역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Constantine, 2002; Reynolds & Rivera, 2012; Sadowsky et al., 1998; Weatherford & Spokane, 2013)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다시 말해, 다문화 태도는 상담자가 다문화 상담을 경험할 때 발견되는 소수자에 대한 긍정적 태도로써, 다문화 상담 역량 발달에 기여하게 된다.

둘째, 다문화 태도가 다문화 상담 역량으로 향하는 경로에서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BJW-others)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BJW-others가 높은 경우, 다문화 태도가 다문화 상담 역량으로 향하는 정적 경로가 약화된다고 볼 수 있다. 다문화 태도와 다문화 상담 역량에 미치는 BJW-others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는 양적으로 충분치 않지만, 상담자의 사회구조적 부당함(injustice)을 향한 인식 및 대처 방식을 형성하는 BJW의 특성을 통해 다문화 상담 역량에 대한 차별적 영향력을 추론할 수 있다.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BJW)은 이른바 ‘세상은 뿌린 대로 거둔다(deservingness)’는 신념을 추구하고 이 신념은 종종 공평(equity)과 동일한 개념으로 대체되곤 하지만, BJW가

분배정당성에 대한 공평한 원칙을 선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Hafer & Sutton, 2016). 오히려 BJW는 기존 사회 체계를 정당화하고 심지어 그 체계가 이익에 반한다고 해도 그것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부적응적일 수 있으며 따라서 BJW가 강할수록 차별에 덜 민감할 수 있다(Jost & Hunyady, 2005). 특히 타인 및 세상에 대한 신념을 의미하는 BJW-others는 비주류집단이 경험하는 어려움의 원인을 개인 책임으로 귀인하는 성향(Correia & Vala, 2003; Lipkus, 1991)이 있어 특히 소외 집단에 대한 부정적 태도 및 낮은 수준의 사회 정의와도 정적인 연관성을 보여왔다(김은하, 전주원, 2019; 김은하, 정보현, 2018; 백근영, 2019; Cozzarelli et al., 2001; Khera et al., 2014; Rubin & Peplau, 1975). 따라서 BJW-others가 높은 상담자들은 사회구조적 차별과 억압에 민감하지 않거나 정당성에 대한 위협을 개인 역량 대처로 개입할 수 있고, 이러한 개입은 상담자 자신 및 소수 집단 내담자의 문화적 세계관과 상담실 안팎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힘의 불균형에 대한 상담자의 자기 인식을 방해할 수 있다. 다문화 상담 역량에서의 자기 인식이란 인종, 민족성을 비롯한 문화에 대한 본인의 태도, 신념, 가치관을 인지하는 동시에 문화적 특권, 차별, 억압에 대한 본인이 속한 문화적 집단 내 사회정치적인 위치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기 때문이다(Constantine et al., 2007). 그러므로 다문화 상담 역량의 첫 단계인 자기인식의 어려움은 결국 다문화 상담 역량 발달의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

셋째, 다문화 상담 경험과 다문화 상담 역량의 관계에서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BJW-others) 수준에 따라 조절된 다문화 태도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BJW-others가 강

할수록, 다문화 상담 경험과 다문화 상담 역량의 관계에서 다문화 태도의 매개효과가 약해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매개효과와 조절효과에 대한 앞선 논의를 종합해보자면, 상담자가 만나게 된 내담자 세계와 그 속에 내재된 사회구조적 차별이 상담자 세계의 정당성을 위협할 때, 그 위협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다문화 상담 경험이 다문화 태도 발현을 거쳐 다문화 상담 역량 발달로 가는 과정을 강화시키거나 방해할 수 있다. 이 과정은 다문화 역량 발달을 위한 교육적 관점 및 목표와도 유사하다. 미국 다문화 상담 관련 커리큘럼을 분석한 김은하 등(2019)에 따르면, 다문화 상담 교육 과정은 상담자 자신의 문화적 가치관과 편견, 고정관념 탐색을 중시하는 구성주의적, 인본주의적 철학에 기반을 두었음을 알 수 있었다. 미국의 다문화 및 사회정의 상담을 위한 상담자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한국 실정에 맞게 소개한 정지선(2020)도 교육의 첫 단계로 지식적인 정보 이해보다 특권과 억압에 대한 상담자의 자기 반영적 이해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 결과의 시사점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상담자의 다문화적 자기 인식을 교육함에 있어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BJW)을 유의하여 해석하고 활용할 부분이 존재한다. BJW는 개인 및 사회에 대한 적응적인 요인이자 인간이 지니는 거의 보편적인 동기이다(Lerner, 1980).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BJW-others)은 기존 사회 체계 유지와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형성에도 관련이 있지만 동시에 사회적 협력에 유용한 신뢰와도 밀접하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과 상황에 따라 친사회적 행동을 촉진할 수 있다(Hafer & Sutton, 2016). BJW와 사회 정의를 촉진하는



행동의 관계를 개인의 특성이나 상황이 조절한다는 선행연구들을 비추어볼 때(Beierlein, Werner, Preiser, & Wermuth, 2011; Hafer & Gosse, 2010) 사회 정의를 향한 변화가 실현될 수 있다는 기대와 효능감이 주어진다면,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은 사회 정의 추구 동기를 합리적으로 행동화하도록 돕는 신념이 될 수 있다(Miller, 1977). 상담자의 사회 정의적 실천은 다문화 상담과 긴밀하게 연결된 개념이므로(Constantine et al., 2007; Ratts et al., 2016; Vera & Speight, 2003), 개인의 문화적 세계관이자 정의를 지향하는 동기인 BJW의 활용은 다문화 및 사회 정의 상담 교육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실제로 정지선(2020)의 정리에 따르면, 사회 정의 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 위해서 관련 수업을 개설하고 사회 정의에 대한 지지적 분위기를 학과 내에서 형성해야 하며, 그것이 차별에 맞서는 실제적인 행동을 증진한다고 밝혔다.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와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다문화 상담 경험 및 교육 경험 실태와 다문화 상담 역량 발달 과정을 함께 조사하여 현재 상담심리학계의 다문화 상담 관련 현주소와 향후 상담실무, 연구 및 교육에 필요한 실천 지점을 논의하였다. 둘째, 한국 다문화 상담자의 발달 과정을 자기 인식적 측면에서 경험적으로 조사하였다. 그동안 상담자의 신념과 태도가 중요하다는 이론적 개념이나 변수 간 관계 연구는 존재했지만 본 연구를 통해 다문화 상담 경험, 다문화 태도와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이 다문화 상담 역량 발달에 각각 어떤 기여를 하고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제를 파악할 수 있었다.

다만 본 연구는 상담자의 자기 보고로 조사

되었기 때문에 사회적 바람직성을 배제하기 어려웠고 무엇보다 상담 경험의 질을 다각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웠다. 후속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다문화 상담 경험의 빈도 혹은 자기보고식 다문화 상담 역량 이외에 더 내밀한 측정이 제안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문화 상담 역량에 대한 상담자와 내담자의 인식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Pope-Davis, Liu, Toporek, & Brittan-Powell, 2001) 실제 내담자를 고려한 측정 방식(e.g., Dillon et al., 2016)이 상담자 자기 보고 연구와는 다른 논의점을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횡단 연구로 설계되었으므로 다문화 상담 역량이 경험, 신념 및 태도를 통해 발달하는 실제적 인과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후속적인 종단 및 실험 연구가 유용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진구 (2008). 다문화교육이 대학생들의 다문화 인식에 미친 영향 조사. *다문화콘텐츠 연구*, 4(1), 53-77.
- 강혜정, 임은미 (2012). 대학생용 다문화태도 척도의 한국판 타당화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3(4), 35-57.
- 권미은, 권미지, 이미아 (2012). 예비특수교사의 다문화 경험, 다문화 인식 및 다문화 효능감 연구. *특수교육*, 11(3), 5-25.
- 김유리지 (2019). 빅데이터 분석 방법을 활용한 다문화 상담 동향 분석.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하, 김경희, 박한솔, 정보현 (2018). 성차별 경험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에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의 조절효과: 세계관입

- 증이론을 토대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3(3), 409-429.
- 김은하, 김도연, 박한솔, 김수용, 김지수 (2017). 한국어판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척도 (Belief in a Just World Scale: K-BJWS)의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3), 689-710.
- 김은하, 신윤정, 이지연 (2019). 상담전공대학 원생을 위한 다문화 상담 교과 과정개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1(4), 1321-1364.
- 김은하, 전주원 (2019).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개인적인 믿음과 일반적인 믿음에 따른 자존감, 우울, 동성애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 및 계층차별주의 태도. 인간이해, 40(1), 1-21.
- 김은하, 정보현 (2018).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점화가 긍정 정서, 부정 정서, 삶의 만족도, 가난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9(2), 323-342.
- 김인규 (2009). 학부 상담학과 교육의 현황과 발전방안 연구. 상담학연구, 10(2), 793-811.
- 김진철, 장봉석 (2010). 초등 예비 교사의 다문화 태도와 다문화 효능감에 대한 연구. 시민교육연구, 42(3), 39-60.
- 김춘희, 손은령 (2014). 국내 다문화상담연구 현황. 상담학연구, 15(6), 2209-2223.
- 나장함 (2010). 다문화주의 패러다임에 대한 종합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1(3), 21-41.
- 박경애, 백지은 (2017). 상담심리학 연구 동향: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지 게재논문(2012~2016) 분석 및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게재논문과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4), 893-913.
- 박수영, 공춘옥, 정윤경 (2018). 동성애자 및 양성애자 내담자의 상담 참여결정 요인에 대한 인식. 상담학연구, 19(3), 367-383.
- 백근영 (2019). 상담자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과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태도의 관계: 책임에 대한 귀인성향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1(4), 1289-1320.
- 상담진흥협회 (2017). 2017 상담전문가 실태보고서. [https://koreancounselor.org/paper/view.asp?bid=bid\\_14](https://koreancounselor.org/paper/view.asp?bid=bid_14) 에서 검색.
- 서영석, 안수정, 안하얀, 이소연 (2019). 한국상담심리학회 현황 및 발전방안에 대한 학회원들의 인식 I: 학회 제반 활동에 대한 학회원들의 만족도 및 요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1(4), 1365-1405.
- 선곡유화, 이영선, 박순덕 (2013). 한국 대학생의 다문화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 동향. 다문화와 평화, 7(2), 173-203.
- 양미진, 이동훈, 고흥월, 김영하, 남현주 (2012). 현장전문가가 지각한 다문화 청소년 상담의 특성에 대한 질적분석. 상담학연구, 13(3), 1181-1209.
- 오은경, 최 미, 최한나 (2016). 국내 다문화 상담 연구 동향: 학술지 및 학위 논문 분석(1993~2016.7). 상담학연구, 17(5), 223-242.
- 위주원, 최한나 (2015). 한국사회 다문화상담자가 지각하는 어려움과 극복방안에 대한 개념도 연구. 아시아문화연구, 40(1), 87-130.
- 임은미, 강혜정, 구자경 (2018a). 일반 상담역량, 다문화 상담역량, 사회정의 옹호 상담

- 역량의 구조적 관계 및 잠재집단 탐색. 상담학연구, 19(5), 209-232.
- 임은미, 강혜정, 김성현, 구자경 (2018b). 한국 상담자의 다문화 상담역량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상담학연구, 19(1), 421-442.
- 전환치료근절운동네트워크 (2016). 성소수자 상담 경험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서울: 전환치료근절운동네트워크.
- 정지선 (2020). 다문화 및 사회정의 상담을 위한 상담자 교육과정.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1), 225-248.
- 최가희 (2018). 사회정의와 상담심리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2), 249-271.
- 최가희 (2019). 한국인 대학생의 외국인 유학생과의 접촉이 다문화 역량에 미치는 영향: 삶의 만족도와 현실감동인식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5(4), 279-303.
- 최현정, 우민정 (2012). 예비유아교사의 다문화 태도 및 다문화 효능감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16(5), 315-338.
- 한국상담심리학회 (2018). 상담심리사 윤리강령. 서울: 한국상담심리학회.
- 황미경 (201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력의 다문화 역량과 서비스 질에 관한 연구 - 서울·경기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심으로 -. 다문화교육연구, 5(2), 115-146.
-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2014). ACA 2014 code of ethics. Alexandria, VA: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7). *Multicultural Guidelines: An Ecological Approach to Context, Identity, and Intersectionality*. Retrieved from: <http://www.apa.org/about/policy/multicultural-guidelines.pdf>
- Arredondo, P., Toporek, R., Brown, S. P., Jones, J., Locke, D. C., Sanchez, J., & Stadler, H. (1996). Operationalization of the multicultural counseling competencies. *Journal of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development, 24*(1), 42-78.
- Beierlein, C., Werner, C. S., Preiser, S., & Wermuth, S. (2011). Are just-world beliefs compatible with justifying inequality? Collective political efficacy as a moderator. *Social Justice Research, 24*(3), 278-296.
- Constantine, M. G. (2002). Racism attitudes, White racial identity attitudes, and multicultural counseling competence in school counselor trainees.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41*(3), 162-174.
- Constantine, M. G., Hage, S. M., Kindaichi, M. M., & Bryant, R. M. (2007). Social justice and multicultural issues: Implications for the practice and training of counselors and counseling psychologist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5*(1), 24-29.
- Collins, S., & Arthur, N. (2010). Culture-infused counselling: A fresh look at a classic framework of multicultural counselling competencies. *Counselling Psychology Quarterly, 23*(2), 203-216.
- Correia, I., & Vala, J. (2003). When will a victim be secondarily victimized? The effect of observer's belief in a just world, victim's innocence and persistence of suffering. *Social Justice Research, 16*(4), 379-400.
- Cozzarelli, C., Wilkinson, A. V., & Tagler, M. J. (2001). Attitudes toward the poor and attributions for poverty. *Journal of social issues, 57*(1), 115-132.

- 57(2), 207-227.
- D'Andrea, M., & Daniels, J. (2001). RESPECTFUL counseling: An integrative multi-dimensional model for counselors. In D. B. Pope-Davis & H. L. K. Coleman (Eds.), *The intersection of race, class, and gender in multicultural counseling* (pp. 417-466). Thousand Oaks, CA: Sage.
- Dillon, F. R., Odera, L., Fons-Scheyd, A., Sheu, H. B., Ebersole, R. C., & Spanierman, L. B. (2016). A dyadic study of multicultural counseling competen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3*(1), 57-66.
- Faul, F., Erdfelder, E., Buchner, A., & Lang, A.G. (2009). Statistical power analyses using G\*Power 3.1: Tests for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Behavior Research Methods, 41*(1), 1149-1160.
- Hafer, C. L., & Gosse, L. (2011). Predicting alternative strategies for preserving a belief in a just world: The case of repressive coping style.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1*(6), 730-739.
- Hafer, C. L., & Sutton, R. (2016). Belief in a just world. In S. Clara & S. Manfred (Eds.), *Handbook of social justice theory and research* (pp. 145-160). New York, NY: Springer.
- Hayes, A. F. (2018).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second edition: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NY: Guilford.
- Hays, D. G., & Erford, B. T. (2018). *Developing multicultural counseling competence: A systems approach* (3rd ed.). New York, NY: Pearson.
- Henriksen, R. C. (2006). Multicultural counselor preparation: A transformational pedagogy. *The Journal of Humanistic Counseling, Education and Development, 45*(2), 173-185.
- Jost, J. T., & Hunyady, O. (2005).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system-justifying ideologies.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4*(5), 260-265.
- Jun, H. (2018). *Social justice,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practice: Beyond a conventional approach* (2nd ed.). New York, NY: Springer.
- Khera, M. L., Harvey, A. J., & Callan, M. J. (2014). Beliefs in a just world, subjective well-being and attitudes towards refugees among refugee workers. *Social Justice Research, 27*(4), 432-443.
- Lee, C. C., & Park, D. (2013). A conceptual framework for counseling across cultures. In C. C. Lee (Eds.), *Multicultural issues in counseling: New approaches to diversity* (pp. 3-12). Alexandria, VA: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 Lerner, M. J. (1980). *The belief in a just world: A fundamental delusion*. New York, NY: Plenum Press.
- Lipkus, I. (1991). The construction and preliminary validation of a global belief in a just world scale and the exploratory analysis of the multidimensional belief in a just world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2*(11), 1171-1178.
- Lipkus, I. M., Dalbert, C., & Siegler, I. C. (1996). The Importance of Distinguishing the Belief in a Just World for Self Versus for Others: Implications for Psychological Well-Be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7), 666-677.

- Loganbill, C., Hardy, E., & Delworth, U. (1982). Supervision: A conceptual model.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0*(1), 3-42.
- Lucas, T., Zhdanova, L., & Alexander, S. (2011). Procedural and distributive beliefs for self and others: Assessment of a four-factor individual differences model. *Journal of Individual Differences, 32*(1), 14-25.
- Major, B., Kaiser, C. R., O'Brien, L. T., & McCoy, S. K. (2007). Perceived discrimination as worldview threat or worldview confirmation: Implications for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6), 1068-1086.
- Mallinckrodt, B., Miles, J. R., & Levy, J. J. (2014). The scientist-practitioner-advocate model: Addressing contemporary training needs for social justice advocacy. *Training and Education in Professional Psychology, 8*(4), 303-311.
- Miller, D. T. (1977). Altruism and threat to a belief in a just world.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3*(2), 113-124.
- Munroe, A., & Pearson, C. (2006). The Munroe multicultural attitude scale questionnaire: A new instrument for multicultural studie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6*(5), 819-834.
- Parrillo, V. N. (2015). *Understanding Race and Ethnic Relations* (5th ed.). New York, NY: Pearson Education.
- Pope-Davis, D. B., Liu, W. M., Toporek, R. L., & Brittan-Powell, C. S. (2001). What's missing from multicultural competency research: Review, introspection, and recommendations.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7*(2), 121-138.
- Pope-Davis, D. B., Reynolds, A. L., Dings, J. G., & Nielson, D. (1995). Examining multicultural counseling competencies of graduate students in psychology.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26*(3), 322-329.
- Ratts, M. J., Singh, A. A., Nassar-McMillan, S., Butler, S. K., & McCullough, J. R. (2016). Multicultural and social justice counseling competencies: Guidelines for the counseling profession. *Journal of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Development, 44*(1), 28-48.
- Reynolds, A. L., & Rivera, L. M.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 characteristics, multicultural attitudes, and self-reported multicultural competence of graduate students. *Training and Education in Professional Psychology, 6*(3), 167-173.
- Rubin, Z., & Peplau, L. A. (1975). Who believes in a just world?. *Journal of social issues, 31*(3), 65-89.
- Sodowsky, G. R., Kuo-Jackson, P. Y., Richardson, M. F., & Corey, A. T. (1998). Correlates of self-reported multicultural competencies: Counselor multicultural social desirability, race, social inadequacy, locus of control racial ideology, and multicultural train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3), 256-264.
- Sodowsky, G. R., Taffe, R. C., Gutkin, T. B., & Wise, S. L. (1994). Development of the Multicultural Counseling Inventory: A self-report measure of multicultural competenci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1*(2), 137-148.

- Sue, D. W., Arredondo, P., & McDavis, R. J. (1992). Multicultural counseling competencies and standards: A call to the profession. *Journal of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Development, 20*(2), 64-88.
- Sue, D. W., & Sue, D. (2016). *Counseling the culturally diverse: Theory and practice* (6th ed.). Hoboken, NJ; Wiley.
- Tropp, L. R., & Pettigrew, T. F. (2005). Relationships between intergroup contact and prejudice among minority and majority status groups. *Psychological Science, 16*(12), 951-957.
- Vera, E. M., & Speight, S. L. (2003). Multicultural competence, social justice, and counseling psychology: Expanding our role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1*(3), 253-272.
- Weatherford, R. D., & Spokane, A. R.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dispositions, multicultural exposure, and multicultural case conceptualization ability. *Training and education in professional psychology, 7*(3), 215-224.
- Zur, O. (2009). Power in psychotherapy and counseling: Exploring the “inherent power differential” and related myths about therapists’ omnipotence and clients’ vulnerability. *Independent Practitioner, 29*(3), 160-164.

원 고 접 수 일 : 2020. 03. 02

수정원고접수일 : 2020. 04. 27

게 재 결 정 일 : 2020. 05. 18

**The Influence of Multicultural Counseling Experience on  
Multicultural Counseling Competence: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Multicultural Attitudes and  
Belief in a Just World for Others**

**Soojung Kang**

**Kumlan Yu**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tudent

professor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plore multicultural counseling experience and education among professional counselors and counselors in training in South Korea, and to examine the effects of multicultural attitudes (MASQUE) and belief in a just world for others (BJW-other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cultural counseling experiences and multicultural counseling competence (MCC). A total of 201 participants completed a questionnaire probing experience with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education, MCC, MASQUE, and BJW-others. The results indicated that South Korean counselors had little experience with multicultural counseling, though 60% of respondents had at least one experience with multicultural counseling education. MASQUE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cultural counseling experience and MCC. Additionally, BJW-others moderated the effect of MASQUE on MCC. Finally, BJW-others had a moderated mediating effect on the path from multicultural counseling experience and MASQUE to MCC.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are discussed.

*Key words* : multicultural counseling competence, multicultural attitudes, belief in a just world for others